

오늘은 '제50차세계 평화의 날' 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평화의 선물을 청합니다.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제1독서 민수기 6, 22~27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화답송 시편 67(66), 2~3, 5, 6과 8 (◎ 2가)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1.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2.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3.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제2독서 갈라티아서 4, 4~7

복음환호송 히브 1, 1~2 참조

◎ 알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루카 2, 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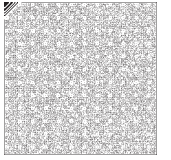
영성체송 히브 13,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예수’ - 하느님의 이름



새해 첫날은 우선 주님 성탄 팔 일 축제의 마지막 날로써 아기 구세주께서 태어난 지 여드레인 바로 오늘, 할례(레위 12, 3 참조)를 받았고, ‘예수’라는 이름도 받았다. ‘예수’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던 순간 천사가 알려주었던 이름이며, 파혼을 작정한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꿈 속에서 일러주어 마음을 움직였던 이름이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예수’는 하느님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이름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이름을 받들어 부름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며, (로마 10, 13 참조) 이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필리 2, 10 참조)

새해 첫날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축성되었다. 하느님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그 육을 취하려

는 사랑의 간청에 마리아는 완전한 자유의지로 순명하였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협조하여 말씀이신 성자 하느님께 사람의 모습을 선사함으로써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다. 이 호칭은 이미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공적으로 승인되었다.

새해 첫날은 또, ‘세계 평화의 날’로 축성되었다. 20세기에 들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교황 바오로 6세는 1968년 새해 첫날을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제정하였다.

지난해는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허물과 아픔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이면 틀림없이 그저께처럼 전국이 들썩거릴 것이다. 물론 그런데 익숙한 우리들이다.

하지만 오늘처럼, 첫날처럼 살아보자. 소망은 살찌우되 욕심은 버리고, 겉모양은 단정히 하되 허례허식은 버리고 참된 가치를 좇아 살아가자. 파고드는 아픔을 남에게 떠맡기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들여 마음껏 아파하며 극복하자. 어떤 경우에도 불법과 편법은 거절하자. 거짓과 부정은 없는 이들을 더 슬프고 아프게 만들뿐 아니라 희망을 앗아가는 죄악이다.

주님! 올 한 해도 저희를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소서. 저희로 하여금 매일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시며, 언제나 신앙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축복이 온 누리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박상대
마르코 신부
온천성당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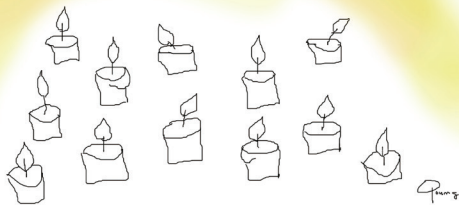
지금 여기

이제 더 이상은

불편한 일이 있어도 모르는 척 넘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좋은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너그려워져서도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거나 상대를 인정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봐야 달라지지 않을 거란
체념이 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라지지 않았던 건
그래봐야 달라지지 않을 거란
체념 때문이었다는 걸.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2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 2일 : 가스파르 델 부팔로, 그레고리오, 나르치소, 마르첼리노, 마르티니아노, 마카리오, 시리디오 문킨, 바실리오(데), 빈첸시아노, 세라핌, 아달하르도, 아르제오, 아벨, 아이랄도, 이시도로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2(월)~3(화) 박상대 신부
1.4(수)~7(토) 송창석 신부

문자참여 #2340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1.3(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신선성당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회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1.6(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

출연 : 임두빈, 김시연, 김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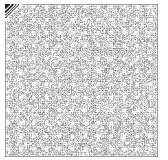
신부들의 수다

1.7(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신부, 김수환 신부

출연 : 표용운 신부

『교구 30년사』에 나오는 교구 자선아파트의 역사



천주교회의 사회 사업은 예비 선교(豫備宣敎)의 성격을 띤 것으로 일반 사회 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이미 박해시대부터 사회 사업을 실천에 옮겨 왔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의 하나가 되었다. 부산 지역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교구 설립 이전부터 그 실천에 노력해 왔다. 그중에서도 의료 사업, 교육 사업, 자선 사업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었다.

교구 설립 후 부산교구 안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된 것은 ‘자선 사업’이었다. 사회 복지 사업과 사랑의 나눔의 실천 운동, 복음의 전파 활동을 겸해 실행된 이 사업은 교구에서 특히 역점을 둔 것으로, 당시 한국 교회 안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그중 “빈민 주택 사업”은 무의촌 진료 사업, 이재민 구호 사업과 함께 사회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1960년부터 시작되었다. 부산교구의 부주교이며 중앙 본당 주임으

로 있던 장병화 몬시뇰은 ‘6·25 사변 후 집을 잃고 판자집이나 천막촌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품어 오던 중, 1959년 가을 무렵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루디(徐基湖) 신부를 알게 되었다. 루디 신부는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한국에 귀화한 후 대구교구 소속으로 있었는데, 장병화 몬시뇰의 뜻을 알고는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를 소개시켜 주었다. 당시 이 부인회는 가톨릭 국가인 오스트리아 국민들로부터 매년 사순절마다 현금을 모금하여 외국의 사회 복지 기금으로 전달해 오고 있었다.¹⁾

장 몬시뇰은 이 사실을 알고는 즉시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에 연락을 취하여, 약 6개월 후인 1960년 3월에 그 부인회로부

터 ‘부산의 난민 주택 건립 사업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는 회답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이 부인회에서 1차로 전해 온 기금은 7만불이었다. 장 몬시뇰은 기금을 얻자마자 부산 시내 남부민동(南富民洞)에 대지 3,457평을 매입하고, 1960년 7월 14일 기공식을 가진 다음 약 6개월 여 만에 난민 주택 50동을 건립하였다.²⁾ 그 후 장병화 몬시뇰은 1966년까지 여덟 차례나 주택(또는 아파트)을 건립하여 총 198세대의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다. 이때까지 오스트리아의 부인회가 부산교구에 지원해 준 건립 기금은 약 31만불에 달했다. 이처럼 1966년까지 부산교구에서 건립한 빈민 주택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³⁾

『교구 30년사』 363~364쪽 발췌
부산교구사 편찬 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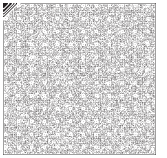
부산교구의 빈민 주택 사업 현황(1960~1966)

차수	연도	종류	세대수	소용 비용	위치
1차	1960	단독 주택	50	7만불	남부민동
2차	1961	단독 주택	6	1만 5천불	영주동
3차	1962	아파트	30	4만불	남부민동
4차	1963	아파트	30	4만불	아미동
5차	1964	아파트	35	5만 5천불	해운대
6차	1965	단독 주택	16	2만불	대청동
7차	1965	단독 주택	16	2만불	북천동(동래)
8차	1966	아파트	15	2만불	북천동(동래)

1) <가톨릭시보> 제242호, 1960. 8. 21 ; <경향잡지> 제52권 제10호, 1960. 10 ; 金九鼎, 『천주교 경남발전사』 191~192쪽

2) 金九鼎, 『천주교 경남발전사』 192쪽 및 <경향잡지> 제52권 제10호, 1960. 10

3) 金九鼎, 『천주교 경남발전사』 192~195쪽 및 <가톨릭시보> 제242호, 1960. 8. 21 ; 257호, 1960. 12. 4 ; 342호, 1962. 9. 9 ; 제358호, 1963. 9. 1 ; 제544호, 1966. 11. 20 ; <경향잡지> 제52권 제10호, 1960. 10 ; 제54권 제10호, 1962. 10 ; 제55권 제2호, 1963. 2 ; 제56권 제6호, 1964. 6.



사제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 12월 사제정기인사 내정 안》을 참사회가 검토하고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합니다. 그동안 각 소임지에서 사목해주신 신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 소임지에서도 착한 목자로서 사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현임지	새임지	성명	현임지	새임지
고원일	서면 주임	서면 협력사목 주임(신설)	차광준	용호 보좌	이주노동자사목
김재관	청소년사목국 부국장	서면 협력사목 주임(신설)	이해용	임호 보좌	복산 보좌
엄종건	야음 부주임	문현 부주임	김수환	서대신 보좌	청소년사목국 차장
강인구	방어진 부주임	중앙 부주임	이철희	반여 보좌	사하 보좌
오창석	몰운대 부주임	감물생태학습관 부관장	문철민	문현 보좌	교구장 비서
서현진	정관 부주임	당감 부주임	조광우	월평 보좌	온천 보좌
김준성	온천 보좌	정관 부주임	한상엽	성지 보좌	사직 보좌
김창석	광안 보좌	금정 부주임	정우학	연산 보좌	몰운대 보좌
김종이	서면 보좌(senda 청년센터 보좌)	남산 부주임	김영웅	우동 보좌	성지 보좌
엄 열	화명 보좌	야음 부주임	김해인	이기대 보좌	서대신 보좌
정철용	청소년사목국	청소년사목국 부국장	이종현	성가정 보좌	광안 보좌
김병조	복산 보좌	남천 부주임	박채민	남산 보좌	양산 보좌
임성근	교구장 비서	우동 부주임	안원철	금정 제2보좌	우정 보좌
신경재	사하 보좌	좌동 부주임	강호성	새신부	월평 보좌
신동화	해운대 보좌	해운대 부주임	이정철	새신부	화명 보좌
조동진	당감 보좌	용호 보좌	류창훈	새신부	우동 보좌
박종민	토현 보좌	교목	최연수	새신부	금정 보좌
송창석	양산 보좌	이기대 보좌	김문경	새신부	임호 보좌
이종민	우정 보좌	연산 보좌	유상우	새신부	반여 보좌
송승국	사직 보좌	토현 보좌			

부임일 2017년 1월 6일(금) 11:00



새해를 맞이해서 술도 좀 줄이고, 담배도 끊고 싶은데, 며칠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찌나하는 걱정이 듭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1 사실 술을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님, 저희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인데, 술만 좀 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데,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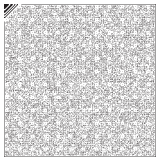
이렇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순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술이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보다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중독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생활 전반이 안정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것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보면, 단순

히 의지가 약해서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끊은 채로 혹은 줄인 채로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회개를 회두(回頭)라고 불렀습니다. 머리를 돌려 다른 쪽을 바라보듯이 내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행위 하나만 끊어내는 것을 넘어 왜 술을 마시게 되는지, 담배를 통해 무엇이 채워지는지와 같은 행위 이상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전반을 살피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회두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돌아보는 성찰과 전반을 바꾸려는 노력,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입니다.

홍성민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parvus@hanmail.net



아빠, 함께 기도해요!



이 선 정 이레네

당신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편지를 써 봅니다. 참으로 어색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 봅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성당 안 가냐고, 아빠도 함께 기도하자고 조르던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신을 믿는 사람은 나약한 존재라고 나는 나 외엔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했던 당신입니다.

교리교사를 하던 제게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왜 종교를 강요하고 세뇌하느냐며 교리교사를 하는 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당을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아이들에게 영화보러 가자고, 아빠랑 축구하러 가자고 유혹도 참 많이 한 당신이었고, 불교 신자인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제사지내야 하는 장손이 세례를 받는 것을 반대하며 아이의 세례를 말렸지만, 내

가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뜻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이면 항상 불편했던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봉사하고 아이들과 함께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성모님 앞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제 등 뒤에서 기도를 하지 말고 차라리 평소에 죄를 짓지 말고 찬물을 끼얹을 때도 많았었지요?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일 년 전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당신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당신의 전부였던 우리 가정, 당신이 사랑하는 일, 그러한 모든 것이 하느님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날 위해 기도해 줘서 고맙고, 이제는 내가 당신

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며 제 손을 잡아 주었지요.

아직도 회사 일에 바빠 일 년의 반을 해외 출장이지만 그래도 출장가방에 묵주와 기도서를 제일 먼저 챙기는 당신을 보며 다시금 하느님 사랑을 느낍니다.

이젠 시춘기에 접어들어 복사도 서기 싫고 성당도 가기 싫다고 반항하며 하느님보다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 아이들을 설득하고 미사에 늦겠다고 먼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당신이 있어 나는 참 든든합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가족은 둘러앉아 기도시간을 가집니다. 묵주기도로 시작하여 하루를 성찰하고, 감사기도로 촛불을 밝힙니다.

‘아빠, 함께 기도해요!’ 라고 외치던 우리 아이들의 바람대로 넷이서 같이 하느님 앞에 앉습니다.

■ 율하성당



본당이 우리 집 아납니까?

우리 본당 어른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연세가 많으심에도 당신 몸 아끼지 않으시고 이제나저제나 본당 걱정이 많은 분이십니다. 본당 건물이 오래되어서 여기 저기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페인트칠을 하고 계십니다. 곳은 날사라도 상관 없이 본당 안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보이면 그저 묵묵히 손에 연장을 들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비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본당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모습에 본당 사목자로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날 어른신께 여쭙보았습니다. 이날도 땀을 뻘뻘 흘리시며 담벼락의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의 질문에 어른신께서는 얇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본당이 우리 집 아납니까?”

까? 우리 집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힘든 게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요.”

어르신에 대답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른신은 평소에 본당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평상시 어른신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당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본당을 위해 하는 일이 그 어떤 일이라 해도 자발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당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며 늘 아끼고 가꾸는 어른신 덕분에 우리 본당 곳곳은 언제나 환하게 빛이 납니다.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늘 밝게 웃으시는 어른신의 모습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본당 사목자로서 감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강정웅 신부(반송성당 주임) k-joyce@hanmail.net



1월의
도서, 영화

내 맘의 창공을 비추는 25개 별

■ 끼아라 루빅 지음 ■ 박정순 옮김
■ 벽난로 ■ 8,000원



성경 말씀을 실제 삶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12개의 성경 말씀 해설과 각 말씀을 일상에서 살아낸 사람들이 증언한, 소박하지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 25편을 실었습니다.

진리는 만남입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지음 ■ 국춘심 옮김
■ 분도출판사 ■ 22,000원



교황의 사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강론입니다. 선명한 표상, 단순한 언어, 명료한 주제,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복음의 핵심에 다다른 교황의 강론은 진리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하느님과 그분 백성의 대화로 만남입니다.

걱정말아요 365일

■ 마우리치오 미리리 지음 ■ 박미애 옮김
■ 바오로딸 ■ 23,000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까? 이 '두려움'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조금 특별합니다. 이 책은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 보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매일의 묵상을 통해 알려줍니다.



와와와 학교가는 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등굣길! "누나와 함께 학교에 가고 싶어요!"
개구쟁이 '와와'의 엄마 몰래, 누나 몰래 학교 가기 프로젝트!

세상 가장 사랑하는 누나 '나상'과 함께
손잡고 '걸어서' 학교에 가고 싶은 '와와'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영관 : 가톨릭소극장(아트씨어터C&C)
- ▶ 관람료 : 주보 지참 시 6천원 → 5천원, 단체 관람 시(20명 이상) 4천원
- ▶ 상영시간표 :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 442-0602, cafe.naver.com/cnctheater



본당에서 보내주신 성탄 미사와 행사 사진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신 본당 홍보분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바일에서
바로 보기

교 구

예신 피정(1차, 2차, 3차)

대상 : 차수별 대상이 다르니 확인바랍니다.
1차(초6) : 1.9(월) 14:00~10(화) 13:00
2차(중1) : 1.10(화) 14:00~11(수) 13:00
3차(중2~고1) : 1.16(월) 14:00~17(화) 13:00
· 푸른나무 교육관 / 문의 : 629-8760~2(성소국)

제8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3.11~4.8 매주 토 15:00~21:00 (총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접수 : 1.16(월)~2.28(화),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아버지 / 문의 : 010-6408-6111, 010-3460-0696(성요셉아버지학교)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1월 3일은 양덕배(사도요한) 신부
님의 선종일입니다. (2012.1.3. 선종)

2018년도 지원자 피정(도보성지순례)

· 1.21(토)~22(일) / 문의 : 629-8760(성소국)

1월 부산교구 혼인 강좌 안내

· 1.15(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참가비 : 1쌍 4만원(선착순 50쌍) / 혼인강좌 교육부
사전 접수 : 462-1870(당일 접수 받지 않음)

본 당

동래성당 사무일 구함

자격 : PC(한글, 엑셀)가능 / 문의 : 555-2295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추천서, 교적사본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를 후원회 미사

김해 : 1.2(월) 11:00 임호성당
울산 : 1.3(화) 11:00 아음성당
문의 : 782-0765

<p>(주) 씨피여행사 4/28 푸르실로 세계대회 참가 14일 루르드, 산티아고(1일도보), 파티마 리스본,살라망카,마드리드 성지순례 경비 : 385만원 / 지도신부 동행 가톨릭센터(본사)담당 010-3837-6434</p>	<p>나가사키 성지순례 대마도·일본·독도 253-5887, 010-8511-2442 발해투어 www.valhae.co.kr 황 백 현(프란치스코)</p>	<p>주단, 포목, 훈수감 도산매, 한복전문 혈성주단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당 1층 주단부 269, 270호 (7호문 안쪽) 646-1123, 918-2246 010-3594-2137</p>	<p>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문) 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p>	<p>서울성형외과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국내 최대의 성형외과 그룹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정형(T.아퀴나스) http://seoulps.co.kr 818-3131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후문 앞</p>
<p>모니카주단·한복 혼수예단, 결혼예복, 한복대여전문 황 위 식(레오) 김 필 분(모니카)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당 1층 주단부 152호(1층 4호문 중간)</p>	<p>성지순례 관광버스 45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결혼식 하객 수송 대표. 우 중 한(리차드), 임 에 경(젤마) 미래고속관광(주) 055-333-6300, 010-9809-6300</p>	<p>혼례청 교우 10% DC 전통과 신뢰의 웨딩 명가 SINCE 1990 서구식, 야외, 전통혼례, 실내 야외 촬영 구성, 공공기관, 성당, 교회, 뷔페 예식 전문 서정자(마르타) 807-2025 http://www.honre.com(총별사 입구)</p>	<p>삼진 커튼 수입커튼, 완제품 커튼, 우드브라이트, 폼비브라이트 이 영 복(요셉) · 김 미 현(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당 1층 11호문 앞</p>	<p>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창간90주년 특가상품(1회한정) 2/21(화)~3/4(토) 11박 12일 발칸반도 경비 : 360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p>

6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 6일 : 가톨릭, 가스파르, 과리노, 날람몬, 라파엘라 마리아 포라스, 마크라, 메리노, 멜라니오, 베드로, 멜키오르, 발타사르, 빌트루다, 안드레아 베세트, 에르미놀도, 요한 데 리베라, 제르트루다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1.3(화) 13:00~15:00(14:00 미사)
· 복산성당 / 문의 : 010-2428-5785

지체장애인지회 후원회 미사

· 1.3(화) 14:00 · 부곡동 사회사목국 4층 강당
미사 : 인상현 신부 / 문의 : 517-0613, 010-3660-2636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신년미사 및 총회

· 1.3(화) 11:00 · 주교좌 중앙성당
주례 : 황철수 주교, 지도신부단
대상 : 전신자 / 문의 : 466-2290

오른대순교자성지 새 사제 첫 미사

· 1.4(수) 11:00 · 오른대순교자성지성당
문의 : 515-0030 / 미사 후 새 사제 안수 있음

울산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기도 및 월미사

· 1.4(수) 14:00 · 복산성당 소성전
지도 : 이주홍 신부 / 문의 : (052)201-6509

농아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 1.6(금) 11:00 · 농아인복지회 3층 성전
문의 : 751-8693 / 10:30부터 미사 수화 공부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첫걸음 첫주요신심미사

첫걸음 : 1.6(금) 21:30 푸른군대 경당
강사 : 노우재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심 : 1.7(토) 11:00 - 생명 수호(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아기봉헌 및 갱신 있음(사전접수)

영상과 음악이 있는 목주기도 100단

· 1.2(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문의 : 646-3746(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성령기도회
· 1.2(월) 19:30 전포성당
· 1.4(수) 20:00 울산 영성의집
- 수요차유기도회
· 1.4(수) 11:00~16:00 / 중식제공
09:05 해운대 주공 3단지 09:35 원동IC
09:30 부산역, 동래 전철역 09:40 온천장 전철역
- 교구 철야기도회(신심미사)
· 1.6(금) 23:00~다음날 04:00
- 교구 성령목상회
제420차(일반) : 1.6(금) 11:00~8(일) 17:30
제421차(청소년) : 1.13(금) 15:00~15(일) 17:30
제422차(일반) : 1.20(금) 11:00~22(일) 17:30
회비 : 일반 10만원(교재비 별도 3,000원),
청소년 8만원, 당일 짐참
버스 : 일반 10:00, 청소년 14:0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신심미사)
· 1.5(목) 20:00~23:00 울산 영성의 집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변호사 조창호(뜨란치스코)
경력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부산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506-7676
부산법원 정문 앞 정림빌딩 908호

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일산자동차매상사
대표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르노삼성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SM6, SM세리즈, QM세리즈)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오두종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종(요한)
805-0200
카톡상담 ID : 오두종성형외과
서면 주디스태와 맞은편 우리은행 5층

(주)석경
전문건설면허법인 주거, 상업,
인테리어 전문업체 의료, 업무공간
심 채 영(예가), 박 승 국(라자로)
해운대구 중동
동일아파트상가 105호 **744-1217**
www.seokkyung.com

50년 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빌딩 맞은편

이삿집은
우리트랜스로
582-1414
582-8555
010-4042-8662
대표 : 변성만(요한) · 권명숙(로사리오)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 · 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임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하지정맥 클리닉
길맥외과의원
박동욱(안드레아), 박우일(요셉)
754-9975
센텀역 11,13번 출구, 임페리얼타워 15층

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시 수리
김 무 나(글라리) *교우 특별 할인*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1층, 빨간색 간판)

♣ 7일 : 가누토 라바드, 라이문도, 레이놀드, 루치아노, 발렌티노, 아나스타시오, 알드리, 야누아리오,
에밀리아노, 올리아노, 켄티게르나, 크리스피노, 클레로, 테오도로, 티로, 펠릭스

**빈민사목과 예인이 하는
감마 생동하는 조직 만들기(기본과정)**

· 1.11(수) 10:00~12(목) 18:00
· 가톨릭센터 5층 교육실 / 대상 : 공동체 활동가,
사회복지지도자, 비영리조직대표, 수도자, 본당사
목위원 조직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문의 : 467-1045, 010-3845-8599

부산ME 소개모임

· 1.16(월) 20:00 · 남천성당
344차 ME 주말 : 1.20(금)~22(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 문의 : 465-1010,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해양사목 외국선박 방문 자원봉사자 모집

· 매주 화, 금요일 14:00~17:00 / 문의 : 469-7658
조건 : 외국어 회화가능자(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군중후원회 자녀입대자 등록

내용 : 성명(본당, 세례명), 부모님 전화번호, 부대주소
(자세히), 제대일 / 활동 : 위문품, 군생활 관련 문의
접수 :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1.6(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첫금요일예수성심신심미사)**

· 1.6(금) 14:00 · 남천성당 소성전
문의 : (02)379-8091

특특! 바이블 청년피정(새해를 말씀 안에서)

· 1.11(수) 19:00 · 바로로말서원
대상 : 30대 미만 미혼 여성 / 문의 : 010-6375-2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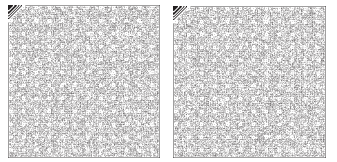
마리아 학교 기초 과정 수강자 모집

· 2.8~4.26 매주 수요일 14:00~17:00(12주)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 6만원
(우리는행 1006-301-276411 티없으신 성심)
내용 : 성경(교부, 역사, 전례) 속의 마리아, 교회
현장 8장, 참된 신심, 33일 봉헌기도
문의 : 010-9620-4820, 634-4845

꽃동네사랑의연수원 청소년지도교사 구함

자격 : 지도사-청소년지도에 관심있는 자(30세 미만)
· 충북 음성 꽃동네사랑의연수원
문의 : (043)879-0406, www.kkotlove.or.kr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8(일) 14:00	부산 본원	010-6271-4110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1.8(일) 14:00	부산 본원	010-9113-4997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학부모를 위한 <가정독서교육과정>

부모가 쉽고 재미있게 가정에서 하는 독서지도
강사 : 임성미(서울가톨릭대 대학원 독서교육학강사)
· 1.10(화), 11(수) 10:00~13:00(6시간)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회, 남천동)

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무료 치유 피정

· 1.6(금) 18:00~8(일) 15:00 / 숙식 제공
문의(010-3563-8864) : 동래(11:00) 전철 3번 출구
-연양(11:40) 톨게이트 고속버스정류장
문의(010-3798-5418) : 부산역(10:30)-
김해시청(11:10) 건너편 정류장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1.9~11, 1.18~20, 2.3~6, 2.9~11,
2.15~17, 2.24~26 / 문의 : (064)796-9181
내용 :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대상 : 개인, 가족, 본당단체 등

제주 먼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하는 제주성지순례(3박 4일
은 추자도 포함), 미사, 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꽃자왈 · 오희 트레킹, 역사 · 평화 순례피정
· 1.15~17, 2.3~5, 2.11~13, 2.19~21,
2.25~27, 3.4~7 / 문의 : (02)773-1463, 1455

대구가톨릭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나군 34%, 다군 66% 모집(수시인원 이월 시 변동
가능), 수능 100% 선발(예체능계열 제외)
원서접수 : 12.31(토)~1.4(수) / 문의 : (053)850-2580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4.17(월)~29(토) · 서유럽 순례
(로마, 루르드, 파리, 바노) / 특별가 : 390만원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로사리오 기숙사생 모집

·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 대상 : 여대생
문의 : (02)741-3071, 010-9333-4532
(로사리오성모의도미니쿠수녀회)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 집>

· 대전 서구 갈마로 187-1(괴정동) ※종교무관
문의 : (042)534-8876(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